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검 —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

● 일시 : 8월 20일~24일 ● 장소 : 러시아 모스크바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서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를 겸한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이 열렸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호주 등 세계 14개국에서 온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들의 총회에 이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러시아·중국·한국의 석학들이 참가했으며 정조영박사의 기조강연과 더불어 열띤 학술토론을 벌였다.



崔榮煥
(재호주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세 계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냉전상태로 대립하던 시절, 공산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에 군림하던 나라, 우주항공기술의 발달로 미국을 앞질러 인류 최초로 사람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냈던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나라, 일상용품의 절대 부족으로 거리에 길게 늘어섰던 서민들의 줄서기 행렬이 끊이지 않던 나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등 첨단과학병기로 무장하여 서방세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붉은 군대를 가졌던 나라,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선녀를 연상시킬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가냘픈 몸매의 발레리나가 있는 볼쇼이발레의 나라 - 그래서 국제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모스크바가 아니었던가. 스스로 부르짖었던 개혁정책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선 소련연방의 첫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슬픈 역사를 지닌 MIKHAIL GORBACHEV 대통령이 'PERESTROIKA(개혁)와 GLASNOST(개방)'를 부르짖으며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와는 국교가 수립이 되어 가까워진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옛날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서인지 입국비자(VISA)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까다로운 입국절차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97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와 「1997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시드니의 러시아 영사관을 찾아 한참을 기다려 VISA 담당 영사를 만났을 때 러시아 외무성의 허가없이 비자를 내줄 수 없었던 무뚝뚝하면서도 무표정한 그의 대답에 기분이 잡쳐 다시 찾아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행사를 통해 급행료를 지불하면서 관광비자를 받아 들고 설레임과 호기심이 뒤범벅이 되어 생애 처음으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내린 것은 8월 20일 오후였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모스크바는 자작나무, 소나무, 전나무, 피나무 등의 혼성림으로 울창한 대평원 속에 모스크바강을 끼고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평화스러움이 깃든 아름다운 도시였다. 여름이 지나고 있는 8월 말 오후의 날씨는 25℃ 정도의 청명한 날씨로 푸른 하늘과 이국의 정취는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지만 우중충한 공항건물과 어두컴



컴한 조명장치 밑에서 순서없이 무질서하게 늘어선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혼잡스러움, 표정이 딱딱한 여자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거북이 걸음의 입국심사, 소지하고 있는 화폐의 액수를 일일이 소련어로 체크하여 고무인을 찍어주는 세관원들의 타성적인 업무수행은 입국심사에서부터 짐검사까지 두시간이나 걸리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느림보 행정의 극치로써 이 나라도 같길이 멀었구나 하고 느낀 것은 필자만의 지나친 걱정은 아니었으리라.

1147년 YURI DORGORUKIY 황제에 의해 모스크바 강둑에 조그만 마을로 자리잡기 시작한 모스크바시는 이제는 9백평방킬로미터의 넓이에 인구 9백만이라는 대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중세기 러시아의 독특하고 찬란했던 문화의 유적물로 가득차 있었다. 러시아 정부의 정부기관들이 들어있는 소련 권력의 상징인 크렘린궁, 양파모양의 황금색 및 호화찬란한 지붕을 가진 고색창연한 사원과 수도원들, 바로크풍과 로코코 스타일의 우아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건축물들, 독·소전쟁의 전쟁기념관 및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14개국 재외과학자들 총회

이 모스크바시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속인 UZKOE호텔에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 14개국(미국,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타



▲ 1997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움 참석자들이 행사후 기념촬영을 했다.

자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온 재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들의 모임인 공동협회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한국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과학기술교류를 위한 심포지움과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학술원회원인 REUTOB ALEXANDER PAVLOVICH박사, 모스크바도로대학 교수인 NOGAI VLADIMIR ALEKSEEVICH박사,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국장인 LEE VLADIMIR연구원, 유명한 교포건축가 KIM NIKOLAI NIKOLAEVICH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교수 한진섭박사와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장인 강귀길박사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남북과학기술교류 심포지움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정조영박사(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부위원장)는 “북한은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야만 인민경제

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세부 실천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과학기술 교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의 정책기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기반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 및 상호이익과 함께 기술선진국으로의 진입에 기초를 두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되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북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를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다”고 주장한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수석연구원인 VLADIMIR FEDOROVICH LEE 국장은 러시아의 핵합대기지, 남한의 핵폐기물저장소, 일본의 각종 산업쓰레기, 극동 및 중국에서의 대기가스 배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 고려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얼키고 설켜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이 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한, 소련, 중국, 일본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자연에 순응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북한 통일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여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학자들이 좀더 긴밀하게 접촉, 자연환경보호연구와 국제법상의 문제를 조화있게 연구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장인 강귀길 연변대학 교수는 ‘남북과학기술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강연에서 “남북관계는 남북한 당국의 내부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남북관계가 상호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다소 침체된 상태이지만 당면한 식량문제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북한은 통신시설이 낙후

하여 일반가정에서는 전화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마을단위로 전화망이 구축되어 있는 정도라고 말하면서 과학기술의 국제화, 현대화에 큰 장애로 등장한 통신기술과 정보망구축사업이 남북기술합작사업으로 유망하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기점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상호불신을 해소, 동족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기로

20세기 갈등의 산물인 냉전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21세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의 특색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열리는 남북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로써 동북아 질서와 남북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러시아학자들의 시각이 공산주의적 보편성을 중시해 오면서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던 북한 편향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반 국가관계로 변화되어 국제 정치적으로 균형각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남북과학기술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는 학술회의 종료직전 종합토론시간에 14개국의 재외과학기술회장단으로 구성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임원들이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에 전적으로 동의, 행동하는 학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동기금 설치에 즉석 동참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남북과학기술협

력기금을 모금하는 첫발을 내딛어 남북과학기술교류 증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백년 이상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3백개 이상의 전문분야별 과학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기초과학의 튼튼한 바탕 위에서 뛰어난 항공우주기술로 핵과 미사일, 우주정거장 「미르」를 보유, 첨단과학기술 선진국이 되었고 개혁과 민주화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체제의 혼란과 경제난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및 기술합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면 서방 선진국처럼 기술페쇄주의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외기술 이전 장벽이 드리우기 전에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술합작을 통한 첨단기술 이전에 과감히 투자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작년 서울 에어쇼에서 최신예 SUKHOI 전투기를 시범 비행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후예이며 러시아연방공군을 통틀어 5명밖에 없는 ‘러시아 공군의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 최 올레그 공군대령(53세)은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 SUKHOI-27형이나 SUKHOI-37형을 한국에 팔려고 열심히 상담중이나 한국측에서 별다른 구매반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척 아쉬움을 나타내던 그의 표정에서 서글프게도 실기(失期) 잘 하고 뒷북 잘 치는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 연상되었던 것은 왜 일까? ⑤